

전남교육청, 체육계 성폭력 문제 등 선제적 대응 나선다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방향 발표...학생선수 인권·학습권 보호 강조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갑질 사건과 관련해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예방조치 시행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각종 성 관련 피해 등에 대한 신고방법 연수를 체계화해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원거리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합숙형태 훈련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및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

하고, 학교운동부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해 학생선수들의 인권 보호와 공부하는 선수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운동부 지도자 및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선수 인권교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학생들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학교운동부 시스템 변화가 미진하다고 판단.

오는 2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갑질 예방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서는 성폭력 및 갑질 예방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며, 훈련지도 시 사용언어 순화에 대한 내용도 다룰 계획이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 학생선수들이 지도자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합숙 형태로 운영되는 운동부 학교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전남의 학생선수들이 훈련에만 치우치지 않고 교육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대학생 멘토와 함께 한 행복한 도전”

전남교육청,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수료식 가져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 4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된 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를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24일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거행한다.

올해로 8년째인 삼성드림클래스 캠프는 삼성사회봉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부 사업으로, 2012년 전남 지역 중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에서 시범 운영한 후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통해 전국 유명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실시한 이번 겨울 캠프에는 도내 농어촌 지역 중학생 1, 2학년 210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하면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받은 것은 물론 다양한 문화 체험 및 리더십 신장 교육 등 미래 사회 핵심 역량 배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허 호 교육복지과장은 축사에서 “삼성드림클래스 캠프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습관 형성, 다양한 문화 체험과 리더십 신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참가 학생들은 이를 통해 꿈을 키우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양교육지원청, 따뜻한 관심으로 추위를 녹인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중 ‘더봄’학생 가정방문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임원재)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지난 8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더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봄’ 학생은 장애학생 중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 노출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로 방학 중 ‘더봄’ 학생들의 안전한 실재를 점검하고자 가정방문 지원을 실시하였다.

‘더봄’ 학생 가정방문 지원을 통해 학생 및 보호자외의 상담을 실

시함으로써 학생의 생활상태를 점검하고 가정환경과 거주지 주변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장애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이번 가정방문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전문분야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봄’ 학생 가정방문에 참여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은 “가정방문을 통해 직접 학생들의 생활모습을 보고 하니, 지역사회의 어떠한 지원들과 연계를 해주면 좋을지 명

확해 지는 것 같다.” 말했다. 또한 가정방문 지원을 신청한 학부모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내 마음 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니 감사하고 안심입니다.”고 말했다.

방학 중 ‘더봄’ 학생 가정방문 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정현 교육지원과장 겸 광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방학 중에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늦추서는 안 되며, 특히 ‘더봄’ 학생들은 가정과 긴밀히 연계하여 학생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학생·학교중심 감사역량 강화한다

전남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역량제고 연찬회 개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학생 중심 교실개혁이라는 민선3기 전남교육 방향에 맞춰 감사도 학생과 학교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여수시 소재 전라남도국제교육원에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 감사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청렴·감사 역량 제고 연찬회를 갖고 이런 방침을 공유했다.

연찬회 참석자들은 한국부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김법대 상임대표의 반부패 법령 제도 및 청렴 정책 강의를 들은 뒤, 그동안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자체감사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자체 감사기능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이번 연찬회에서는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 실현과 학생 중심 교실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감사 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감사 공무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은 물론 상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교폭력 등 5개 분야의 분임을 구성해 분야 별 토론과 효율적 감사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김정환 기자

영광교육지원청, 함께 나누는 행복한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위문품 전달 “이웃사랑 실천”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석)은 설명절을 앞두고 25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영광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영광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은 매년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기 위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

로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경로당의 한 어르신은 “교육지원청에서 노인들에게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추운 겨울날에도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준석 교육장은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영광=서희권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혁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마름길을 열어줍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 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